

하나님의 '편재'(遍在)와 '부재'(不在)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의 비교연구-1)

하경택*

들어가는 말

누구나 빛진 자로 살아간다. 학자들에게는 선구자들로부터 받은 유산이 크다. 김정우 교수가 시편 연구에 남긴 유산은 크다. 시편 전체에 대한 학문적 주석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는 시편 150편을 성실하게 주석했다.²⁾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한 눈에 보게 하는 데는 이만한 주석이 없다. 또한 그는 『히브리 시학』(서울: 기혼, 2013)을 통해 시편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집대성하였다. 특별히 평행법과 수사비평에 관한 글은 『히브리 시학』의 백미로 꼽힌다. 필자7의 본 연구도 각주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저작에 힘입은 바 크다.

본 연구는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의 비교연구이다. 김정우 교수의 퇴임을 기념하면서 그의 학문적 유산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시편과 필자의 주된 연구 분야인 욥기 본문을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두 본문에는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지만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16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 김정우 교수의 시편 주석의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의 서평을 참조하라. 서평: 김정우의 『시편주석 I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848), 『Canon&Culture』, 5:1 (2011), 289-298.

동시에 두 본문은 탄원시의 성격을 띤 본문으로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본문이 구약의 하나님 이해에 더 나아가 구약의 영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김정우 교수가 남긴 유산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1. 시편 139편: 하나님의 ‘편재’(遍在) 속에서의 간구

1.1. 본문사역

- 1절 지휘자의 사용을 위한 다윗의 시
야훼여, 당신은 나를 살펴보시고 아십니다.
- 2절 당신은 나의 앓음과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내 심중을 꿰뚫어 보십니다.
- 3절 내 가는 것과 눕는 것을 감찰하셨고,
나의 모든 길을 잘 아셨습니다.³⁾
- 4절 진실로 내 혀에 아무 말이 없을 때에도,
보소서, 야훼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 5절 당신은 나의 앞과 뒤를 감싸셨고,
내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 6절 이 지식이 저에게 너무 놀랍고,
높아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 7절 내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당신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3) 여기에서 ‘잘 아신다’고 번역된 ‘사칸’(סָכַן) 동사의 히필 형태는 욥 22:21와 민 22:30에만 나타난다. 이것은 많이 사용하고 경험하여 잘 알고 익숙한 상태를 말한다. L. Köhler und W.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HAL (Leiden: E. J. Brill, 1983), 713.

-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에도 당신은 거기에 계시며,
스올에 자리를 펼지라도 당신은 그곳에 계십니다.
-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머문다 해도,
- 10절 거기서도 당신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당신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 11절 내가 말하기를,
정말 어둠이 나를 덮치고,
어둠이 나를 두르는 빛이 되라 해도,
- 12절 어둠이 당신 앞에서 어둡게 하지 못하며,
밤은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둠이 빛과 같습니다.
- 13절 정말 당신은 내 장기(臟器)를 지으셨고,
내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 14절 나는 당신께 내가 그토록 경이롭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일은 놀랍고, 내 영혼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15절 내 뼈가 당신으로부터 숨기우지 못합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조직될 때에도
- 16절 나의 형체가 나타나기 전에⁴⁾ 당신의 눈은 보았으며,
당신의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해진 날들이 아직 첫 날도 되기 전에.
- 17절 당신의 생각⁵⁾이 내게 어찌나 귀중한지요? 하나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 18절 내가 그것들을 세려해도, 그것들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내가 깎을 때,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 19절 하나님! 당신은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4) ‘폴렘’(עֶרְמָ)은 임신 4주부터 4개월까지의 태아를 지칭하는 말(영어로 embryo)이다.

5) 여기에서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은 ‘레아’(רֵעָ)이다. 이것은 2절에서처럼 ‘의도’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의미로 ‘동료’ 또는 ‘친구’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17절의 진술은 19절 이하의 ‘악인들’과 ‘대적자들’에 대한 진술과 연결된다. F. L. Hossfeld, E. Zenger,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u. a.: Herder, 2008), 720.

피 흘리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20절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당신의 성읍들을⁶⁾ 모욕합니다.

21절 야훼여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혐오하지 않습니까?

22절 내가 그들을 지극히 미워하나이다.
그들은 나에게 원수들입니다.

23절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속마음을⁷⁾ 아시옵소서.

24절 나에게 어떤 우상⁸⁾의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주소서.

1.2. 양식과 구조

시편 139 편은 가장 난해한 시 가운데 하나이다. 시상(詩想)이나 양식에 대한 견해들이 분분하다. 우선 1-24 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시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컨대, 슈미트(H. Schmidt)는 19-24 절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이 부분이 본래 독립적인 시로서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⁹⁾ 궁켈(H.

6) 이 부분은 매우 모호하다. ‘아레카’ (אֲרֵכָה)를 ‘차레카’ (צֵרֵכָה)로 고치거나 ‘아르’ (אֵר)의 아랍어적 의미를 기초로 ‘당신의 원수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십계명의 어법(출 20:7; 신 5:11)을 따라 ‘셀카’ (שֵׁלָה, 당신의 이름)로 고쳐서 읽기도 한다. 필자는 본문의 형태를 살리면서 문장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였다. F. L. Hossfeld, E. Zenger, *Psalmen* 101-150, 717; L. C. Allen, 『시편 101-150』, WBC 21,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1), 418.

7)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낱말은 ‘사르아킴’ (סָרְאִיִּם)으로서 여기 외에 시편 94편 19절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나 생각’(beunruhigende Gedanke)을 표현한다. L. Köhler und W. Baugartner, *HAL*, 1266.

8) ‘오체브’ (אֲצִיב)는 ‘고통’이나 ‘징벌’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우상’을 의미하는 동음이의어의 쓰임새(사 48:5; 또한 호 10:6 참조)를 볼 때 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 C. Allen, 『시편 101-150』, 419.

Gunkel)은 시편 139 편안에 찬양, 감사, 탄식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는 혼합시로 이해하면서도 기본 분위기는 찬양적이라고 평가하였다.¹⁰⁾ 하지만 그는 화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키텔(R. Kittel)도 같은 맥락에서 시편 139 편이 가지고 있는 지혜적이며 교훈적인 요소를 지적하였다.¹¹⁾ 게스텐버 거(E. S. Gersten- berger)는 이 시편 안에 탄식, 감사, 찬송, 지혜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어느 하나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적 절하다고 평가하고 잠정적으로 하나의 ‘묵상’(Meditation)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¹²⁾ 이러한 다양한 요소 때문에 시편 139 편은 ‘분류가 불가능한 시’로 평가되기도 했다(J. M. Bullard).¹³⁾

하지만 시편 139편은 하나의 통일된 시편으로 고찰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최종 본문의 형태로 보여주는 주된 분위기에 따라 이 시편의 양식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우선 1연(1-6절) 과 4연(19-24절)의 연결점들을 통해서 시편 139편이 완결된 형태의 통일성을 가진 시로 고찰될 수 있다(연[聯]의 구분에 관해서는 아래 구조분석을 보라).¹⁵⁾ ‘꿈 (미가, 일어나다) 동사의 활용(2절과 21절), 길(Weg) 은유의 사용(3절

-
- 9) H. Schmidt, *Das Gebet der Angeklagten im Alten Testament*, ZAWB 49 (Gießen: Töpelmann, 1928); Idem, *Die Psalmen*, HAT I.15 (Tübingen: Mohr, 1934), 245.
- 10)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586-587. 반 게메렌(Van Gemeren)도 이와 유사하게 시편 139편의 혼합시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
- 11) 이 시편의 “절반은 찬양시고 절반은 가장 큰 신화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Allwirksamkeit)에 대한 교훈적인 고찰”이다.
- 12)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TL 15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1), 406.
- 13) 김경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687.
- 14) 크라우스(H. J. Kraus)는 시편 139편에 대한 장르분석에서 현재의 본문 순서를 시간적으로 재구성한다. 이 시편에서 고찰되는 감사나 신뢰의 요소에 주목하면서 이 시편을 ‘찬양 시’로 분류하고, 마지막 연에 나타난 탄식을 시인이 “언젠가 곤경 중에 야훼 앞에서 외쳤던 말들”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19-24절의 내용이 다른 내용보다 앞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H.-J. Kraus, *Psalmen 64-150*, BK XV/2 (Neukirchen-Vluy: Neukirchener Verlag, 1972), 916.

과 24절), 야훼와 하나님에 대한 빈번하고 다양한 호격 사용(1절과 4절[야훼], 19절[엘로아], 21절[야훼], 23절[엘]) 등이 이 시편의 통일성을 지지해 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1절과 23절에 나타난 야훼/하나님의 조사(Untersuchung)와 승인(Erkennung) 모티브가 수미상관(inclusio)의 양태로 나타나 시편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¹⁶⁾

이러한 고찰을 전제로 할 때 시편 139편의 장르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시편 139편의 장르분석을 위해서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제 4연의 의미가 크게 작용한다. 제 4연의 내용이 시편 139편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편 139편은 탄원시의 유형에 분류되고, 더 정확하게는 화자의 원수들인 악인들의 심판을 기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무죄천명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편의 장르분석에 동의하는 많은 학자들이 본 시편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재판과정에서 찾는다. 벤첸(A. Bentzen)은 본 시편을 ‘피고자의 기도문’ 중 하나라고 보았으며(출 22:8-9; 신 17:8-13; 왕상 8:31-32 참조), 바이저(A. Weiser)도 이 시편이 예배의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결정의 준비과정’으로서 자신의 본래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뷔르트바인(E. Würthwein)은 이러한 모든 암시들을 하나의 포괄적인 제의적 설명으로 종합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은 ‘기도자의 무죄를 규명하기 위한 조차라는 말로 표현된다.’¹⁷⁾ 이와 유사하게 자이볼트(K. Seybold)도 “신적 재판을 위한 공식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어느 피고의 기도”라고 말했다.¹⁸⁾ 그러나 필자에게 이 시편은 모빙켈(S. Mowinckel)의 분석처럼 ‘결백을 표현하는 탄원시’로 정의할 수 있을 뿐(시편 5, 7, 17편 참조),¹⁹⁾ 이 시편의 ‘삶의 정황’을 반드시 재판절차나 어떤 제의상황에 귀속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악인의

15)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0.

16) J. L. Mays, 『시편』, 현대성서주석, 신정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545.

17) E. Würthwein, “Erwägungen zu Ps 139,” *VT* 7 (1957), 165-182.

18) K. Seybold, *Die Psalmen*, HAT I/15 (Tübingen: Mohr, 1996), 515.

19) S. Mowinckel, *Psalmestudien*, Vol. 5 (Kristiania: Dybwad, 1924), 91.

권력과 불의한 구조악이 주는 억울함 속에서 비롯된 일상의 개인적인 기도문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편의 양식과 내용에 관하여 매우 간명하게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한 시인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판결과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시편의 구조분석에서 텔리취(F. Delitzsch)는 세 연으로 나누었다(1-12절, 13-18절, 19-24절). 하지만 크라우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대부분 네 연으로 나눈다(1-6절, 7-12절, 13-18절, 19-22절).²⁰⁾ 네 연으로 분석한 학자들 가운데 아래 두 사람의 분석이 흥미롭다. 먼저 클리포드(R. J. Clifford)는 ‘나’와 ‘당신’ 사이에 있는 인칭의 변화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시편 139편의 구조를 분석한다.²¹⁾

- 1) 하나님을 처음 경험함: 하나님이 주어(1-6절)
- 2) 하나님을 처음 경험함: 시인이 주어(7-12절)
- 3) 하나님을 두 번째 경험함: 시인이 하나님을 새롭게 봄(13-18절)
- 4) ‘주님, 악인을 죽이시고 내 마음에 악이 있는지 살피십시오’(19-24절)

다음으로 김정우는 한시(漢詩)의 기본구조에 해당하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조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²²⁾

- 1)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1-6절, 起)
- 2) 하나님의 편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7-12절, 承)
- 3) 모태에서 형성되어가는 자신을 봄(13-18절, 轉)
- 4) 승리의 확신(19-24절, 結)

20) 다양한 구조분석에 대해서는 J. Holman, “Structure of Psalm 139,” *V/T* 21 (1971), 298-310을 참조하라.

21) R. J. Clifford, *Psalms 73-150*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김정우, 『시편주석 III』, 689에서 재인용.

22) 김정우, 『시편주석 III』, 689-690.

필자는 본 시편을 네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위의 두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하면서 각 연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1)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1-6절)
- 2)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능력에 대한 고백(7-12절)
- 3) 인간창조와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13-18절)
- 4) 무죄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19-24절)

이와 같은 구조분석에서 각 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연의 첫 번째 부분은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1절, 7절, 13절, 19절), 두 번째 부분은 제시된 주제를 부연하거나 전개하고 있으며(2-4절, 8-10절, 14-16절, 20-22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앞의 내용을 종합하거나 주석하는 결론적 진술이 나타난다(5-6절, 11-12절, 17-18절, 23-24절).

1.3. 본문 해설

1.3.1.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1-6절)

이 시편은 하나님의 아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된다(1절). “야훼여, 당신은 나를 살펴보시고 아십니다.”²³⁾ 여기에서 ‘살펴보다’로 번역된 ‘하카르’

23) 크라우스는 이러한 고백이 제의적이고 종교재판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시 7:9f; 17:3ff; 26:1ff; 44:21ff; 렘 12:3 등에서의와 같이 모함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야훼의 심사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야훼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아신다(왕상 8:39)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장소에 등장하고 ‘심판송양’으로 ‘지식의 하나님’(삼상 2:3)을 찬양한다고 말한다. H.-J. Kraus, *Psalmen 64-150*, 917. 하지만 제1연의 분위기는 ‘심사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이다.

(777)동사는 보석을 분별할 때(욥 28:3), 법적인 분쟁에서 증거를 저울질할 때(신 13:14), 군사적인 작전에서 적진을 정찰할 때(삿 18:2) 사용되는 낱말로써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행동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마치 검사나 감찰관과 같이 시인의 생각, 동기, 행동을 철저하게 조사해 왔으며, 그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는 고백이다(창 16:13; 시 44:21; 렘 17:10; 행 1:24; 15:3 등 참조).²⁴⁾

주제 제시부에 이어지는 내용(2-3절)은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으로써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으로 나타난다(신 6:7; 11:19; 시127:2; 또한 시 1:1). 2절과 3절은 각각 평행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로 대응을 이룬다. 두 구절에 모두 전반절에는 화자의 구체적인 일상이 소개되고(‘앉음과 일어섬’[2절] 그리고 ‘가는 것과 눕는 것’[3절]), 후반절에는 앞의 내용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첨예화된 진술이 이어진다.²⁵⁾ 2절에서는 ‘멀리서도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며(렘 23:23; 시 138:6; 특히 시 11:4이하 참조),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을 잘 아신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표현한다. 1절의 일반적인 진술은 2절의 일상생활로 발전하였고, 3절에서 공시간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제 4절에는 가장 깊은 언어생활로 심화된다.²⁶⁾ 야훼께서는 입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도 아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꿰뚫어 보신다는 모티브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편들에서 자주 고찰된다(예컨대, 시 5:7; 7:10; 11:4이하; 17:3; 26:2 등). 이것은 지혜전통의 요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감찰하셔서 인간의 내면의 모습, 즉 인간의

24) 김정우, 『시편주석 III』, 694.

25) 이것은 히브리시의 평행법 분석에서 쿠겔(J. Kugel)이나 알터(R. Alter)의 평행법 이해에 적절한 예가 된다. 그들은 용어를 달리하기는 하나 평행법에서 전반절의 내용이 후반절에서 단순한 ‘재진술이 아니라 ‘강조 또는 확대’되거나 심지어 ‘드라마화’된다고까지 말한다. 김정우는 스기라 9장 9절의 신약성서 인용의 예를 통해 ‘평행법을 잇는 시대,’ ‘평행법을 발견한 시대,’ 그리고 ‘평행법을 재발견한 시대’로 구분하여 히브리 시에 대한 분석에서 활용된 평행법의 역사를 탁월하게 조망하고, 평행법이 현재의 성경번역과 해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김정우, “제2장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 이론적 기초,” 『히브리 시학』 (서울: 기혼, 2013), 71-97.

26) 김정우, 『시편주석 III』, 695.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밝히 아신다(욥 13:9; 렘 12:3; 17:10 등 참조).²⁷⁾

5절은 이전의 개별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진술한다. “당신은 나의 앞과 뒤를 감싸셨고, 내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삼’에서 그치지 않고 화자와 함께 하셨다. 이 진술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님의 행동의 의미가 압박과 감시나 아니면 보호와 인도냐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²⁸⁾ 그만큼 그 의미를 결정하기 힘들다.²⁹⁾ 여기에서 ‘감싸다’로 번역된 ‘추르’ (חָצַר) 동사는 적이 공격할 때 어떤 도시나 사람을 ‘포위하는’ 적대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신 20:12; 삼상 23:8 등) 보호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예전대, 아 8:9). 또한 ‘누구 위에 손을 얹다’(שִׁית עַל כָּף)는 표현도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할 수 있고 반대로 징벌을 의미할 수도 있다.³⁰⁾ 이러한 5절의 진술은 이어지는 6절과 연결될 때 그 미묘함이 증폭된다. “이 지식이 저에게 너무 놀랍고, 높아 거기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감탄인가 아니면 하나님 행동의 불가해성에 대한 탄식인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5절과 6절의 진술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구원하셨다고 찬양하는 다른 시편들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시 4:2; 18:20; 118:5).³¹⁾ 제 1연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27)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1.

28)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나 함께 하심이 보호가 되느냐 감시가 되느냐의 문제는 욥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별히 시편 8편의 고백(시 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에 대한 패러디로 나타나는 욥의 탄식(7:12-21; 또한 욥 13:21; 19:6-12 참조)이 대표적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편 8편에서는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지만 욥의 발언에서는 탄식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나님의 ‘돌려싸삼’이 사탄의 문체제기(욥 1:10)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로 나타나지만, 욥의 탄식(욥 3:23)에서는 하나님의 ‘압박’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감시 카메라 기능의 이중성에 비교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 욥기 연구(개정증보판)』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6), 145.

29) L. C. Allen, 『시편 101-150』, 412-413.

30) L. Köhler und W. Baugartner, HAL, 952. 다후드는 이 표현이 어느 한 극단을 가리키기 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할을 표현하는 중간적인 진술이라고 말한다. M. Dahood, *Psalms III*, 288; L. C. Allen, 『시편 101-150』, 413쪽에서 재인용.

31) W. Groß, “Bedrohliche Gottesnähe als Gebetsmotiv,” Gönke Eberhardt, Kathrin

하심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것이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기 보다는 제 4연에 나타나는 탄원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5절과 6절의 고백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감격이나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불가해성을 토로하는 시인의 탄식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²⁾

1.3.2.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능력에 대한 고백(7-12절)

제 1연에서 제 2연으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의 주제로의 변화로 파악된다.³³⁾ 7-10절은 누구도 야훼의 현존으로부터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시인은 먼저 7절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야훼로부터 도피 불가능함을 선언한다. “내가 당신의 영(루아흐, אֵלֶּךָ)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당신의 얼굴(파님, פָּנֶיךָ)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루아흐’는 평행어인 ‘파님’처럼 능력있는 야훼의 현존, 즉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의 능력과 힘”(F. Nötscher)에 대한 표지이다.³⁴⁾ 여기에서 ‘루아흐’와 ‘파님’의 순서가 시편 51편 13절과 104편 29절 이하과 마찬가지로 의미있게 고찰된다. 그것은 인간론에서 점차 증가되는 생명의 영의 독립성에 상응하게 나타나며 창조의 영에 대한 강조를 떠올리게 한다(겔 37:5이하, 9절 이하, 14절; 또한 사 34:16; 욥 32:8; 33:4; 느 9:20 참조).³⁵⁾

이어지는 내용(8-9절)은 앞의 주제 제시부의 물음을 이어받아 도망할

Liess (Hg.), *Gottes Nähe im Alten Testament*, FS B. Janowski, SBS 20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4), 77.

32) C. Buysch, *Der letzte Davidsalter: Interpretation, Komposition und Funktion der Psalmengruppe Ps 138 - 14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95.

33) 김정우, 『시편주석 III』, 697.

34) H.-J. Kraus, *Psalmen 64-150*, 918-919. 김정우는 ‘주의 산과 ‘주의 얼굴’이 구약성경에서 가끔 평행을 이루어 나타난다(시 51:11; 사 63:9-10; 겔 39:29)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주의 산’은 ‘하나님의 실제의 핵심이며’, ‘주의 얼굴’은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개방성과 열망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김정우, 『시편주석 III』, 697.

35)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2.

수 있는 가능성의 극단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드러낸다. 8절에서 시인은 수직적 차원에서 이동공간의 극단을 제시한다. 야훼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³⁶⁾ 9절에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수평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동공간의 극단을 제시한다. ‘새벽 날개’는 동이 터오는 동쪽을 의미하고, ‘바다의 끝’은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한다. 동쪽과 서쪽의 가장 먼 곳으로 도망하는 것도 의미 없다. 사면이 측량 된다. 하지만 야훼는 모든 곳에 계신다.³⁷⁾ ‘도망할 곳이 없다’는 주제가 구약성서 본문 가운데 두 곳에서 두드러진다. 하나는 아모스의 예언에서 나타난다. ‘예언의 끝’(das Ende der Prophetie)이라고 평가되는 ‘문지방’에 대한 다섯 번째 환상(암 9:1-4)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가도 숨을 곳이 없다.³⁸⁾ 하늘이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스올이나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도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요나서에 나타난다. 요나는 야훼의 낚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시도한다(욘 1:3). 하지만 당시 땅 끝으로 여겨진 다시스(스페인의 남서부의 항구 타르텍수스)로의 도망은 실패한다. 요나의 행동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신앙과 불일치를 이루어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요나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시도한 사람이요, 신앙과 삶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10절의 진술은 다시 그것이 구원의 행동인가 아니면 공격의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서 손과 오른손이 평행법으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평행법은 시상(詩想)이 일반적 범주에서 특별한 범주로 진척되고 발전되는 점층법적 효과를 나타낸다.³⁹⁾ 여기에서 특별히 후반절에서

36)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스올은 암 9:2이나 욥 11:8에서는 긍정되나 시 88:6에서는 부정된다.

37) H.-J. Kraus, *Psalmen 64-150*, 919.

38) 아모스의 환상은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네 번째 익은 여름 과일 광주리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네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8:2)는 언급을 통해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오직 심판만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아하즈’ (אֲחַז) 동사로 표현된 ‘붙잡다’라는 것이 시편 138편 7절과 같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의 행위인가 아니면 움켜잡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파괴적 행위에 대한 묘사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그 자체로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위의 5절에서처럼 화자의 상황과 진술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서는 이 진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행동의 의미보다는 압박과 감시의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1-12절의 진술은 화자의 도피 시도들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다. 시인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불가능함을 인정한다.⁴⁰⁾ “정말 어둠이 나를 덮치고, 어둠이 나를 두르는 빛이 되라 해도, 어둠이 당신 앞에서 어둡게 하지 못하며, 밤은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어둠이 빛과 같습니다.” 시인이 외치는 어둠을 부르는 어떠한 주문도 힘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야훼 앞에는 어둠도 밝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빛과 어둠의 주제는 욕기 22장 13-14절이나 34장 22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 능력과 심판 영역의 주제와 연결된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다.”⁴¹⁾ 사람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해도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다(암 2:14f; 5:19f; 9:1ff; 사29:15 참조).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어둠과 밤을 낮과 빛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1.3.3. 인간창조와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13-18절)

13절에서는 새로운 연이 시작된다. ‘카’ (קָ)나 강조된 인칭대명사 ‘아타’

39) 김정우는 이러한 평행법을 ‘포의어’(hyponym) 평행법이라고 부른다. 김정우, “제2장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성경 번역: 이론적 기초,” 『히브리 시학』, 121-124.

40)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19.

41) L. C. Allen, 『시편 101-150』, 430.

(נָפֶשׁ)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징후들이다.⁴²⁾ “정말 당신은 내 장기(臟器)를 지으셨고, 내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의 창조의 결과임을 고백한다. ‘지으셨다’로 번역된 ‘카나’ (נָפֶשׁ) 동사는 창세기 14장 19절과 잠언 8장 22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묘사한다.⁴³⁾ 11-12절에서 암시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이제 전면에서 등장한다. 세상의 통치자요 심판자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모든 사람에 대한 그의 전지하심과 통찰력 있는 인식은 그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한다(시33:14f; 94:9ff 참조).⁴⁴⁾ 여기에서 ‘장기(臟器)’로 번역된 ‘킬야’ (קִלְיָא)는 항상 복수형으로 쓰여 내장기관 중에 하나인 ‘콩팥을 가리키지만, 감정과 정서가 자리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를 나타낸다(시 7:10; 26:2; 렘 11:20; 17:10; 20:12 참조). 13절 후반절은 인간창조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사람의 몸이 정교하게 조직된 직조물로 관찰된다(욥 10:8f; 시 119:73 참조).

14절은 이러한 인간창조에 대한 반응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신의 존재가 그토록 경이롭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 당신의 ‘일’로 번역된 ‘마아세’ (מַאֲסֵי)는 본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했다(시 45:5; 65:6; 106:22).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활동을 가리킨다. 14절에 나타나는 ‘알다’와 ‘놀라운’의 두 가지 중심개념은 6절과 연결된다. 두 곳 모두 화자가 ‘알다’의 주어이다. 그러나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 6절은 시인의 이해불가능을 표현하는데 반해 14절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긍정이요 공감적 감탄을 표현한다.⁴⁵⁾ 15절과 16절은 다시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자신의 뼈마디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42)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19.

43) 본래 카나 (נָפֶשׁ) 동사는 ‘매매해서 취득하다’(시 74:2; 78:54)는 뜻을 가지다가 포로기 이후에 ‘창조하다’라는 창조신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3.

44) H.-J. Kraus, *Psalmen 64-150*, 919.

45)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4.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조직되었다 해도 그렇다. 여기에서 ‘은밀한 가운데’와 ‘땅의 깊은 곳’은 평행법으로서 인간창조를 묘사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 ‘땅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흔히 스올이나 음부를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태를 의미하는 ‘은밀한 곳’과 평행법을 이루어 인간창조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땅 깊숙한 곳에 있던 흙을 채취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사건을 암시한다(창 2:7; 욥 33:6).⁴⁶⁾ 더 나아가 ‘땅의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을 의미함으로써, 그곳까지 자신의 손길을 펴서 인간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묘사한다.⁴⁷⁾ 16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시인의 형체가 나타나기 전부터 시인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책’은 ‘하늘의 책’으로 인간의 운명과 삶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다(사 65:6; 단 7:10; 또한 ‘야훼의 책’에 관하여 시 69:28; 출 32:32-33 참조).⁴⁸⁾ 그의 날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야훼는 시인의 일생을 알고 계신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예정설이 아니다. 야훼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지식을 말한다.⁴⁹⁾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그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는 세계의 심판자와 창조주 하나님께 앞드린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한다(17-18절). “당신의 생각이 내게 어찌나 귀중한지요? 하나님!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해도, 그것들은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놀랍고 귀중하다. 그것은 시인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와

46) 김정우, 『시편주석 III』, 702.

47) Christen Frevel, Oda Wischmeyer, *Menschensein. Perspektiven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NEB-Themen 11 (Würzburg: Echter, 2003), 17.

48) 고대 중동 세계 문헌에 나타난 ‘하늘의 책’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F.-L. Hossfeld, E. Reuter, “כַּתָּב,” ThWAT V, 942-943; G. Lanczkowski, “Buch/ Buchwesen,” TRE VII, 270.

49) H.-J. Kraus, *Psalmen 64-150*, 920.

사고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시 36:8; 40:6; 104:24 참조). 여기에 이어지는 마지막 언급은 주목할 만하다. “내가 깎을 때, 나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 12장 1-2절에서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가?⁵⁰⁾ 아니면 시편의 여러 진술들(시 3:6; 4:9; 17:3)에서와 같이 혼란스럽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밤을 보내고 난 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후자의 상황으로 여겨진다.⁵¹⁾ 여러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지향하는 시인의 태도와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시 73:23 참조).

1.3.4. 무죄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19-24절)

19절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⁵²⁾ 이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한다.⁵³⁾ “하나님, 당신은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50) A. Wagner, “Permutatio religionis. Ps. CXXXIX und der Wandel der israelitischen Religion zur Bekenntnisreligion,” *V/T* 57 (2007), 100.

51)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6.

52) 마지막 연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3회나 등장한다(19절, 21절, 23절, 그리고 17절에). 여기에 사용된 ‘엘로야’ (אֱלֹהִים)는 특별히 욥기에 자주 사용되는 신명(神名)이며, ‘카탈’ (כַּתָּל) 동사의 용례는 이밖에 욥기 본문 두 곳(13:15; 24:14)에서 뿐이다(오바다 1장 9절에 사용된 용례는 ‘카탈’ 동사의 명사 형태인 ‘케텔’ (כַּתָּל)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편 139편이 갖고 있는 욥기와 연관성을 엿볼 수 있고, 두 본문 모두 아람화의 영향으로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F.-L. Hossfeld, E. Zenger, *Psalmen 101-150*, 726.

53) 일반적으로 탄원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종교적 관념을 담고 있으며, ‘전쟁에 있어서 야훼의 능력을 보여준다. 따라서 탄원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오던 간에 그것은 “하나의 목표, 즉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으로 움직인다. Ee Kon Kim,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 Psalms. A Matrix for the Establishment of a Psalm Theology*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5), 51; 김정우, 『히브리 시학』, 209에서 재인용. 또한 탄원시에 나타나는 ‘하나님 부름’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118-127.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요소가 고찰된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언급이다. 이것은 탄원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세 주체(하나님, 시인, 원수) 중 하나이다.⁵⁴⁾ 19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외친다. “피 흘리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라.” 시인은 악인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악인과 한 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인들에게 떠나라고 외친다(시 6:9; 101:4; 119:115).

20절에서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며, 당신의 성읍들을 모욕합니다.” 후반절의 ‘아레카’(אֲרֵכָה)는 필자의 사역에서와 같이 ‘당신의 성읍들’로 이해할 때 시온에 대한 강조가 잘 드러나 있는 시편 120-134편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며 악인들의 행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주지를 모욕한다.⁵⁵⁾ 시인은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21절). 이제는 신명(神名)이 야훼로 바뀌어 있다. “야훼여!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당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혐오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지극히 미워하나이다. 그들은 나에게 원수들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악인은 복수로 나타난다. 그들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음으로 화자에게 적으로서 나타난다.⁵⁶⁾ 이러한 상황은 예레미야(12:1-3)의 상황과 유사하다. 예언자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악인의 멸망을 간구한다. 시편 139편 화자도 동일한 맥락에서 악인의 죽임을 간구한다.⁵⁷⁾ 22절에서 ‘지극히’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 ‘타클리트’(תַּכְּלִיטִי)는 소수의 본문들(느 3:21; 욥 11:7; 26:10; 28:3)에만 등장하는 낱말로서 급진적이고 완전한 거부를 의미한다.⁵⁸⁾ 여기에서 소위 ‘원수시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편에서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고, 악인들에 대한 미움은 이기적인 발상이나 저열한 영성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⁵⁹⁾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구이며

54) 탄원시에 등장하는 하나님, 시인, 원수의 삼각관계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128-152.

55)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7.

56)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6.

57)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7.

58) F.-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728.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다.⁶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인의 몸부림이다. 여기에는 악인들의 권력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의문시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는 근본적인 인식이 깔려있다.⁶¹⁾ 그래서 시인은 악인과 원수가 저지른 악과 폭력에 저항하며 투쟁한다.

23-24절에는 시인의 마지막 간구가 나타난다. 이것은 이 시편의 분위기와 장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 라고 말한다(23절)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을 알려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속마음을 아시옵소서.” 이것은 1절에 나타난 “야훼여, 당신은 나를 살펴보고 아십니다.”와 연결되어 이 시편을 둘러싼다.⁶²⁾ 동일한 주제의 내용이 서두의 고백과 말미의 간구로서 짝을 이룬다. 이것은 시인에게 무죄의 확신이 없다면 내뱌올 수 없는 말이다. 동시에 그것은 악인의 위협 가운데서 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이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시험과 점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한다(24절). “나에게 어떤 우상의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주소서.” 시인은 이 진술을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길을 제시한다. ‘우상의 길’과 ‘영원한 길’이다. 이 두 가지 상이한 길에 관한 내용은 시편 1편의 주제를 떠올리게 한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⁶³⁾ 이에 반해서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은 10절의 묘사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삶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시 5:8; 27:11 참조).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시어 자신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구하

59) ‘원수시편’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교회의 성무일과에서 시편 139편 19-22절 단락을 누락시키거나 독립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여 시편 139편에서 제외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이점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E. Zenger, 『원수시편의 이해: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120-122.

60) 이 점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G. Sauer, *Die strafende Vergeltung Gottes in den Psalmen*, Basel Univ. Diss., 1957; E. Zenger, 『원수시편의 이해: 복수의 하나님?』, 118-129.

61) E. Zenger, 『원수시편의 이해: 복수의 하나님?』, 126-127.

62) J. L. Mays, 『시편』, 545.

63) 시편에 나타난 우상 숭배에 관한 언급들을 참조하라(시 97:7; 106:36, 38; 135:15).

는 것이다.⁶⁴⁾

1.4. 내용요약과 중심주제

이 시편의 중심주제는 ‘성찰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고 간구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인은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판결과 인도를 간구한다. 시인은 제1연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해 고백하며(1-6절), 제2연에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능력’에 대해서(7-12절), 제3연에서는 ‘인간창조와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한다(13-18절). 그러나 이 고백들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呪文)이 아니다. 질문과 열망이 내포된 고백들이다. 제1연과 2연에서 하나님의 전지(全知)와 편재(遍在)에 대해 고백하지만 거기에는 탄식의 분위기가 풍겨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거나 도망할 수 없고 온전히 감찰당하고 붙들려 있는 인간존재의 모습이 부각된다. 제3연에서는 약간의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된다. 앞 연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전지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제3연의 분위기는 탄식보다는 감사와 감격의 분위기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제4연에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에 근거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변화와 구원을 간구한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열망하며 악인들과 벌이는 선한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이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황의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고 간구한다. 시인의 청원과 간구에는 시인의 강력한 신앙과 고백이 근거로 작용한다. 시편 139편은 올바른 고백 위에 올바른 간구가 가능하고, 올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삶이 가능함을 깨닫게 한다.

64) J. L. Mays, 『시편』, 549.

2. 욱기 23장: 하나님의 ‘부재’(不在) 속에서의 탄식⁶⁵⁾

2.1. 본문의 개요

욕의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욱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욱기 23장은 이른바 ‘욱-시문’(Hiobdichtung)의 내용 중 욱이 세 친구들과 벌인 논쟁 안에 들어 있다. 욱과 세 친구의 논쟁을 구분하면, 이 논쟁은 욱의 첫 번째 발언(3장)에 이어서 세 친구들과 욱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세 바퀴를 도는 논쟁이다. 첫째 바퀴와 둘째 바퀴에서는 엘리바스(4-5장; 15장), 빌닷(8장; 18장), 소발(11장; 20장)에 맞서 욱이 각각 한 번씩 대응하여 발언한다(6-7장; 9-10장; 12-14장; 16-17장; 19장; 21장). 셋째 바퀴에서는 엘리바스(22장)와 빌닷(25장)의 발언만 나타나고 그들에 대한 욱의 대응이 이어진 후(23-24장; 26-28장), 욱의 마지막 발언이 등장한다(29-31장).

그러므로 욱 23장은 세 친구들과의 논쟁 중 세 번째 바퀴에서 엘리바스에 대응하여 말한 내용이다. 친구들과의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첨예화되고 격렬해진다. 이러한 논쟁이 세 번째 바퀴로 가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좌초된’(gescheitert) 대화로 끝이 난다. 엘리바스는 바로 앞 22장에서 욱의 잘못을 숨김없이 비난한다(5-9절). 그러면서 욱의 생각이 예로부터 하나님을 경멸했던 자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다고 비방하지만(12-20절),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킨다면(21절 이하, 특히 23절) 경험하게 될 ‘악인 욱’의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한다(21-30절). 엘리바스는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욱에게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고 불의를 버리라’고 강하게 권고한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욱은 분명 악인이다.

65) 이하의 내용은 다음 필자의 책에서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수정을 거쳐 가져온 것이다. 하경택, “엘리바스에 대한 욱의 세 번째 대답(23장 1-17절) -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의 외침,” 『질문과 응답으로서 욱기 연구(개정증보판)』, 205-213.

그러나 그가 돌이킨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욥의 발언은 이러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다.

2.2. 본문사역

- 1절 욥이 대응하여 말했다.
- 2절 오늘도 나의 탄식이 반항적이며,
나의 손이 나의 신음 위에서 무겁다.
- 3절 내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알고,
내가 그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 4절 나는 그분 앞에서 소송을 벌이고,
내 입을 변론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 5절 나는 그분이 나에게 대응하시는 말을 알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것이다.
- 6절 그분이 큰 권능으로 나와 싸우실까?
아니다. 그분은 나를 주목하실 것이다.
-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고,
나는 나의 재판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 8절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분별할 수 없다.
- 9절 그분이 활동하실 때 내가 왼편에서 목격할 수 없고,
그분이 오른 편에서 돌 때 내가 볼 수 없다.
- 10절 정말 그분은 나에게 있는 길을 아시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실지라도 나는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 11절 나의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다.
-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고,
내 규정보다도 그분의 입의 말을 내가 더 간직했다.

- 13절 그러나 그분은 한 분으로 계신다. 누가 그분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그분이 원하시면 그는 하신다.
- 14절 정말, 그분은 나에 대한 결정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분에게는 많다.
-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분의 면전에서 놀라며,
내가 인지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한다.
- 16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용기를 잃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놀라게 했다.
- 17절 정말, 내가 어둠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고,
흑암이 내 얼굴을 덮었다.

2.3. 본문 해설

위의 욥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세 단락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락(1-7절)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이 강조되고, 두 번째 단락(8-12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죄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며, 세 번째 단락(13-17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탄식이 이어진다.

2.3.1.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바라는 욥(1-7절)

2절에서 욥은 우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한다. 그의 탄식은 여전히 '반항적'(קָבַח)이다(6:3; 10:1 참조). 그리고 그의 처지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자신의 손으로 힘껏 막아야 할 만큼 괴롭고 힘들다. 바로 앞에서 엘리바스는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욥의 그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맞고 있는 현실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희망한다. 여기에서 그의 '자리'(מְנוּחָתִי)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킨다. 그리고 정의의 심판이 이뤄지는 곳이

다(시 89:15; 97:2 참조). 욥은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만나서 법률적인 심판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과 만난다면 욥은 자신의 사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것이다(4절).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이해할 것이다(5절). 그분은 힘으로 자신과 다투지 않으시고 자신을 주목할 것이다(6절). 그리고 ‘정직한 자’(רָשָׁי, 1:1, 8; 2:3; 또한 4:7; 17:8 참조) 자신은 변론을 벌여 결국 재판장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을 것이다(7절).

2.3.2.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무죄한 자신에 대한 확신(8-12절)

그런데 욥이 그토록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9:11 참조). 동서남북 사면에서 찾아보아도 그를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8-9절에서 히브리말의 네 방위가 다 등장한다. 성전의 방향과 같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앞뒤좌우는 각각 동서북남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정할 수 없고 파악 불가능한 분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시편 139편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 경험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시편 139편 시인은 수직적 차원의 극단(하늘과 스올)과 수평적 차원의 극단(동쪽과 서쪽 끝) 어디에 가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했다(시 139:7-12).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不在) 상황이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때 욥은 10-12절에서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⁶⁶⁾ 우선 10절 상반절에서 욥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서로 반대되는 그림을 통해 보여준다. 8-9절에서 말했듯이 욥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길을 정확히 아신다(시 139:9-10). 그렇지만

66) 특별히 10절은 욥기 본문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고 오용되고 있는 구절중 하나이다. 욥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연단하시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어 본문뿐 아니라 이 발언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토록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점검/시험’하시더라도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될 것이다.⁶⁷⁾ 금은 어느 문화권이나 순수함을 상징한다. 욥은 자신이 그러한 제련과정에서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순수성을 검사받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자신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⁶⁸⁾ 이러한 욥의 확신은 11-12절에서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6:10; 10:7; 17:9 참조). 또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다른 본문들을 참조하라. 예컨대, 시 139:23-24; 시11:4-7). 이러한 욥의 발언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엘리바스의 권면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2.3.3.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탄식(13-17절)

욥은 이제 다시 자신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술로 나아간다. 그분은 ‘한 분으로’(יְהוָה אֱלֹהִים) 계신다. 이 표현은 ‘쉐마 이스라엘’(신 6:4 이하)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유사하다. 이것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유일신론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양태(bet essentiae)가 하나로서 변함없는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에 대항하여 그분의 뜻을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9:12; 11:10 참조).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신다(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품으셨던 뜻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14절; 또한 10:13 참조).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유일성과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67) 여기에서 사용된 ‘바환’ (יָבֵן) 동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추출해내는 제련과정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사 48:10; 시 66:10 참조). 이 동사는 시편 139편 2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68) 이러한 제련과정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다. 귀금속의 제련 및 정련은 신앙생활의 진실성이 시험받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 백성과 그 구성원 개개인이 형벌과 고난을 통해 정화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도가니’에서 금을 달구어서 불순물을 분리해 내는 과정이다(잠 17:3; 27:21; 숙 13:9; 말 3:3; 벰전 1:7; 계 3:18 참조).

그는 이 발언을 통해 감사나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욥에게 그분은 8-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잡히지 않고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는 ‘숨어계시는 하나님’(Deus absconditus)이시기 때문이다. 욥이 경험하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분이다(15절; 또한 시 33:8; 115:3; 119:120 참조). 자신에게 용기를 잃게 하고 놀람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다름 아닌 전능자 하나님이다(16절).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전개된 욥의 상황은 온통 어둠과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뿐이다.

3. 하나님의 편재(遍在)와 부재(不在) 사이에서

시편 139편은 여러 면에서 욥기 본문과의 연관성이 고찰된다. 아람어적인 표현들이나 흔하지 않는 동사형태, 지혜문학적인 기원을 가진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러한 언어적·양식적 측면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많다.⁶⁹⁾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멀리 계심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두드러진다.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에는 줄곧 화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곧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두 화자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이 가운데서 화자는 하나님의 ‘편재’(遍在)를, 때로는 ‘부재’(不在)를 경험한다.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 두 본문의 비교는 매우 흥미롭다. 두 본문에 등장하는 화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침’(시 139:1-4; 욥 23:10)과 ‘무죄 확신’(시 139:23; 욥 23:7, 10-12)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시 139:7-10)를 다른 한편에서는 ‘부재’(욥 23:8-9)를 경험한다. 그러

69) C. Buysch, *Davidpsalter*, 2006, 150.

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두 화자 모두 ‘편재’와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 가도 계시며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나, 현재 그가 경험하는 것은 원수 들로부터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부재’이다(시 139:20-22). 읊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나,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바는 자신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의 ‘편재’다(욥 23:15-16).⁷⁰⁾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와 ‘부재’가 공존하고,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가까이 계심’이 함께 경험된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포월(抱越)’이다.⁷¹⁾ 이러한 상황에서 두 화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바는 동일하다. 두 화자 모두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아 현재 경험하는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다. 시편 139편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길’로 인도되길 바라고 있으며(시 139:24), 읊은 하나님께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나 회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욥 23:7). 이것이 시편 139편의 시인과 욥기 23장의 읊이 지향하고 갈구하는 ‘포월적’ 임재요 현존이다.

70) 이러한 편재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재 속의 현존의 의미는 ‘시편은 아뢰의 계시와 현존의 확실성과 관련해서만 그의 숨어계심을 말한다.’는 시편 신학의 이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직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숨길 수도 있다. 숨어계심은 그의 나타나심의 한 양상이다 (Verborgenheit ist ein Attribut seiner Offenbarung).” H.-J. Kraus,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4), 90.

71) ‘포월(抱越)’ 개념은 필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김정우 교수의 독특한 용어이다. 이것을 굳이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껴안아 넘어 선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를 하나로 묶어내는 말이고, 하나님의 ‘편재’와 ‘부재’의 이중성을 하나의 용어로 드러내는 말이다. 그는 이 개념을 시편 139편을 평가하면서 처음 사용했고(“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인은 하나님의 소원한 초월성에 대한 부담을 포월성[con-transcendancy, 抱越性]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를 향한 주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는다.”) 『시편주석 III』, 687), 구약의 영성을 이 포월성 개념으로 푸는 시도를 하였다(“구약의 영성: 멀리 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Deus Revelatus]의 변증법적 포월성 - 렘 23:23-25와 시 139:1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5 [2010], 10-34).

두 본문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앙이다. 두 본문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하나님의 대한 고백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고백을 온 몸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을 삶에서 일구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현재 편재를 경험 하는가 부재를 경험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두 화자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편재를 경험하며(시 139편), 하나님의 편재 속에서도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욥 23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의 진정성'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과 믿음이 삶 속에서 녹아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앙은 편재를 경험하든 부재를 경험하든 외침을 만들어낸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며, 그 외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포월적'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한다.⁷²⁾

<주요어>

하나님의 편재(遍在), 하나님의 부재(不在), 하나님의 포월(抱越), 탄식과 응답, 시편 139편, 욥기 23장

<Key Words>

the omnipresence of God, the absence of God, the con-transcendence of God, lament and answer, Psalm 139, Job 23

* 접수일 2016년 3월 30일, 수정일 2016년 4월 8일, 게재 확정일 2016년 4월 15일

72) 김정우 교수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총신대 교수직에서 퇴임한다. 하지만 그의 퇴임은 김정우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깊은 영성과 학문적 통찰이 배어있는 저작들로,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동료들과 후학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의 '포월적' 임재가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이곤, 『구약성서의 고난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김정우, “구약의 영상: 멀리 계신 하나님(Deus Absconditus)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Deus Revelatus)의 변증법적 포월성 - 렘 23:23-25와 시 139:13-18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5 (2010), 10-34.
-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0.
- 김정우, 『히브리 시학』, 서울: 기훈, 2013.
- 하경택, 『질문과 응답으로서 율기 연구 (개정증보판)』,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6.
- Hossfeld, F.-L., Zenger, E.,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u. a.: Herder, 2008.
- Allen, L. C., 『시편 101-150』, WBC 21,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1.
- Buysch, C., *Der letzte Davidpsalter: Interpretation, Komposition und Funktion der Psalmengruppe Ps 138 - 145*,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9.
- Clifford, R. J., *Psalms 73-150*,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 Frevel, C., Wischmeyer, O., *Menschensein. Perspektiven des Alten und Neuen Testaments*, NEB-Themen 11, Würzburg: Echter, 2003.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FO'IL 15,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1.
- Groß, W., “Bedrohliche Gottesnähe als Gebetsmotiv,” Gönke Eberhardt, Kathrin Liess (Hg.), *Gottes Nähe im Alten Testament*, FS B. Janowski, SBS 202,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4, 65-83.
-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Holman, J., “Structure of Psalm 139,” VT 21 (1971), 298-310.
- Kim, Ee Kon, *The Rapid Change of Mood in the Lament Psalms. A Matrix for the Establishment of a Psalm Theology*, Seoul: Korea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5.
- Köhler, L. und Bau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I-IV*, HAL, Leiden: E. J. Brill, 1967/1974/1983/1990.

- Kraus, H.-J., *Psalmen 64-150*, BK XV/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 Kraus, H.-J.,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4.
- Mays, J. L., 『시편』, 현대성서주석, 신정균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Mowinckel, S., *Psalmenstudien. Vol. 5*, Kristiania: Dybwad, 1924.
- Sauer, G., *Die strafende Vergeltung Gottes in den Psalmen*, Basel Univ. Diss., 1957.
- Schmidt, H., *Das Gebet der Angeklagten im Alten Testament*, ZAWB 49, Gießen: Töpelmann, 1928.
- Schmidt, H., *Die Psalmen*, HAT I.15, Tübingen: Mohr, 1934.
- Seybold, K., *Die Psalmen*, HAT I/15, Tübingen: Mohr, 1996.
- Wagner, A., “Permutatio religionis. Ps. CXXXIX und der Wandel der israelitischen Religion zur Bekenntnisreligion,” *VT* 57 (2007), 91-113.
- Wagner, A., “Permutatio religionis. Ps. CXXXIX und der Wandel der israelitischen Religion zur Bekenntnisreligion.” *VT* 57 (2007), 91-113.
- Würthwein, E., “Erwägungen zu Ps 139,” *VT* 7 (1957), 165-182.
- Zenger, E., 『원수시편의 이해: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초록>

하나님의 ‘편재’(遍在)와 ‘부재’(不在)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의 비교연구-

하경택

(장로회신학대학교)

본 연구는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의 비교연구이다. 두 본문에는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하지만 동시에 두 본문은 탄원시의 성격을 띤 본문으로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유사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본문이 구약의 하나님 이해에 더 나아가 구약의 영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시편 139편과 욥기 23장에는 줄곧 화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곧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두 화자 모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두 본문에 등장하는 화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삼’(시 139:1-4; 욥 23:10)과 ‘무죄 확산’(시 139:23; 욥 23:7, 10-12)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반대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편재’(시 139:7-10)를 다른 한편에서는 ‘부재’(욥 23:8-9)를 경험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두 화자 모두 ‘편재’와 ‘부재’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와 ‘부재’가 공존하고, 하나님의 ‘멀리 계삼’과 ‘가까이 계삼’이 함께 경험된다.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포월(抱越)’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화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비는 동일하다. 두 화자 모두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아 현재 경험하는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시인과 욥기 23장의 욥이 지향하고 갈구하는 ‘포월적’ 입재요 현존이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신앙’은 편재를 경험하든 부재를 경험하든 외침을 만들어낸

다.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며, 그 외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포괄적'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한다.

<Abstract>

God's 'Omnipresence' and 'Absence': A Comparative Study of Psalm 139 and Job 23

Prof. Kyung-Taek Ha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roject is a comparative study of Psalm 139 and Job 23. In them the themes of the 'omnipresence' of God and the 'absence' of God appear in sharp contrast. At the same time, however, both texts show many similarities with each other, as both have features of lament psalms. The aim of the study is to find their significance for the understanding of God and the spirituality of the Old Testament. In Psalm 139 and Job 2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God is all the way at the center. The speakers of the two texts are making all stateme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God's character and behavior.

All the speakers featured in the two texts speak of the 'knowledge' of God (Ps 139: 1-4; Job 23:10) and 'the confidence of innocence' (Ps 139:12; Job 23:7, 10-12) as their common ground. But they experience God in directly opposite ways. The speaker of Psalm 139 experiences the 'omnipresence' of God (Psalm 139: 7-10) and Job experiences the 'absence' of God (Job 23:8-9). Thinking a little deeper, however, the two speakers are experiencing the 'omnipresence' of God and the 'absence' of God simultaneously. In these two texts the 'omnipresence' of God and the 'absence' of God coexist as God's distance and God's nearness are experienced at the same time. In such a situation, both the speakers hope for the same thing. They want to be rid of the current suffering through a recognition of innocence. This is the

'con-transcendent' presence and existence of God that the speaker of Psalm 139 and Job in Job 23 eagerly desire. In addition, authentic faith in God's 'sovereignty' and 'being with' creates a cry at the time of experiencing the absence as well as the omnipresence of God. Their cry meets God's answer and causes the psalmists experience the 'con-transcendent' presence and existence of God.

